

양파값 안정 시장격리에 농민들 '죽을 맛'

5개 농협 200여 농가 11억 피해
저장성 약해 상품성 저하 보관손실
전남도·무안군 피해 보상 난색
정부 "타작물과 형평성 안맞아"

양파 수급 조절을 위해 시장격리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 농협들이 죽을 맛이다.
사업 과정에서 수 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이 피해 보상에 난색을 보이면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참여 농협들의 손실 보상비는 한해 당

기 수익의 50~90%에 달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남도와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양파 값 급락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4,895톤 규모의 조생양파 시장격리를 실시했다.
전남에서는 무안농협(2,052톤) 서남부(820톤), 정계(1,165톤), 몽탄(68톤), 복신안(263톤) 등 5개 농협조합 200여 농가가 참여해 4,359톤의 양파가 시장격리됐으며 이는 전체 물량의 약 89%에 달한다.
시장격리는 조생양파 재배면적 증가와 출하시기가 겹칠 경우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은 총 5억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에 kg 당 107원(품대·수확비·저장비·운송비 등)을 지원했다.
사업 추진 이후 양파 가격은 지난 5월 kg당 574원에서 6월 651원, 7월 700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문제는 조생양파 출하연기 사업 참여 농협에 손실이 발생하면서 부터다.
조생양파는 저장성이 약해 과거 수확 후 시장출하 형식으로 사업한다.
저장일이 50~60일로 당초보다 길어지다 보니 전체 수매량 중 20~40%가 부패, 곰팡이 등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로 감도 손실이 발생했다.
감도분 폐기를 위해 kg당 평균 150원의 비용이

추가 투입되는 등 사업 과정에서 지역 5개 농협은 총 11억 3,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무안군은 피해 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손실액을 보전하는 경우는 지침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손해를 보상 하는 것은 타 작물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가 피해 보상에 난색을 표하자 전남도와 무안군도 마땅한 지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피해 보상이 한푼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농협의 향후 경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당기 순이익이 한해 평균 10억원인 무안농

협의 경우 이번 사업 참여로만 5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지난해 3억 7,000억의 당기 순이익을 올린 청계농협의 피해액은 3억 2,000만원에 달한다.
결국 양파 가격을 회복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 농협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노은준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은 "통계청과 농촌경제연구원 발표한 올해 조생양파 재배면적 조사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것도 출하 연기 물량과 매입 단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농협 사업규모, 생산환경 등의 차이를 고려해 일정 수준의 보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시장격리 사업 피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조생양파 재배면적은 1,500ha로 전년(1,985ha) 대비 24.4% 감소했다. 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조생양파 재배면적은 2,939ha로 전년(2,683ha)보다 9.5% 늘어난 것으로 집계해 재배면적 차이는 두배에 달했다.
/김용현 기자

GGM,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 '캐스퍼' 양산체제 돌입

빛그린산단서 기념식...노사상생 첫 작품
현대차 경형 SUV 자동차시장 반응 후끈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15일 역사적인 1호차 '캐스퍼(CASPER)'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GGM은 이날 경형SUV 캐스퍼 첫 양산과 함께 올해 1만 2,000대를 생산하게 된다.

▶ 관련기사 18면

이날 오전 10시 광주 빛그린산단에 자리한 GGM 조립공장에서 열린 '캐스퍼 1호차 생산 기념식'에는 박광태 GGM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과 이용섭 광주시장, 내외빈 등이 참석했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23년 만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서 신차를 내놓는 광주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날"이라고 자평했다.

박 대표이사는 "GGM은 광주시민의 공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먹 불끈 쥐고 성공시킬 수 있었다"면서 "시민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기념식에 보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가 포용과 나눔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치켜세우면서 "고용창출 효과도 본격화돼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15일 오전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양산 1호차 생산기념 행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박광태 GGM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참석자들이 '캐스퍼(CASPER)'의 출시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성능에 디자인까지 더한 캐스퍼에 국민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GGM은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을 기반으로 노사 상생을 실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통한 동반성장 등을 내걸고 설립된 대한민국 제 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다.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캐스퍼는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경형 SUV로 실용성과 안정성, 개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차종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올해 1만 2,000여대를 생산하고 내년에는 7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차는 오는 29일 캐스퍼를 론칭하고 10월 초부터 고객에게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캐스퍼를 구매해 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에 화답하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깊은 애정의 의미로 사전예약 신청 첫날인 14일 오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캐스퍼 구입을 예약했다.
/서미애·황애란 기자

이낙연 사직안, 국회 본회의 가결
추석 연휴 지지층 결집 '배수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8일 전격 사퇴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 사직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209표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득표 행진이 이어지자 반전을 꾀하기 위해 꺼낸 승부수로 평가된다. 오는 25~26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배수진을 침으로써 추석 연휴를 거치며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경선 후유증 등을 우려해 만류의 뜻을 밝혔지만, 이 전 대표가 완강한 의사를 거듭 밝히자 결국 처리 쪽으로 선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 전 대표의 뜻을 받아들여 사직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역시 특별히 반대 뜻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이 전 대표 사직안은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gidp 광주디자인진흥원

d-Revolution

9.1-10.3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장소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디자인진흥원

주최 | 광주광역시

주관 | (재)광주디자인진흥원

협력주관 | 광주시립미술관